환자냐, 페이션트(Patient)냐

글 / 이시형

"다 됐어요. 조금만 참아요!" 자주 해본 소리 아닙니까? 하지만 선생님, 제발 이 말만은 말아주십시오. 참다니요? 아픈걸 못 참아 병원에 온 것 아닙니까? 다 되다니요? 그러고도 몇번을 더 사람 잡으려 그러십니까? 그 정도야 참아야지! 호통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난 그런 의사가 싫다.

'병원에 온 이상 안 아프게 해줘야지, 그래서 온 건데 뭘 더 참아?'

서양 의학에서는 환자를 페이션트(patient)라 부르는 모양이지만 난 이 말이 싫다. 이건 참고 견디라는 뜻이다. 불평도 말고 의사 지시 대로 고분고분 잘 따라야 치료가 잘 된다는 뜻이리라. 이거야말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발상이다. 아파 못 견뎌 병원에 온 사람더러 뭘 더 참고 견디란 소리냐? 진단상, 치료상 조금만 참으라지만 그건 병원사정이고 아픈 사람 입장에선 한시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일단 안 아프게 해주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토록 아프게 하니까 사람들은 병원이라면 지레 겁을 먹고 오질 않는다. 아주 곪아 터져 못쓰게 된 지경에서야 죽지 못해 내원한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안 왔느냐고 야단치지만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의사 탓이다. 아마 의사들은 사람들 아프다는 말에 너무 익숙해서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의사도 아파봐야 옳은 의사가 된다는 말이 그냥 지어내서 한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아프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남의 아픔은 아무래도 내 아픔만큼 절박하지는 않다. 해서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긴다. 이건 의사라는 직업의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말로야 환자의 아픔을 함께 한다지만 진짜 그렇게 되면 세상 의사들은 모두 정신병에나 걸리고 말 것이다.

신음하는 환자 곁에서 밤낮을 보내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선을 그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하지만 그래도 환자에게 페이션트(patient)가 되길 강요해서는 안된다. 요즈음은 미국에서도 이 말대신 클라이언트(client)로 부르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는 모양이다. 환자가 고객으로 되고 보니 어쩐지 상거래 같은 느낌이 들어 이 역시 듣기에 거북하다. 하긴 요즈음은 병원도 경영이다. 최신 경영 기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병원이다. 미국에선 이미 전문 경영인이 병원 경영을 맡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인지 고객이란 말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몇해 전 시사주간지 조사에서 우리 병원이 '고객' 만족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 내가 병원장을 맡고 있던 때라 은근히 기분도 좋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니 '고객'이란 말에 어쩐지 저항감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여하튼 참고 견디라는 주문이 아니고 친절한 자세로 편안히 모셔야 한다는 고객 제일주의란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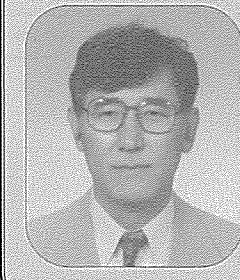
아프지 않게, 편안히, 내 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게 병원이다. 해서 요즈음은 '안 아픈 병원'이 인기다. 수술 후 진통제 주사량을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장치를 해 놓았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아픈 것 참지 말고 마음껏 조절하여 편안히 지낼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난 정신과 전공의 수련을 시키면서 진정제를 씀에 있어 아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당장 숨 넘어 갈 듯 불안, 초조, 공포에 떠는 환자에게 달리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죽하면 죽고 싶어 하겠어. 당장 세상에 종말이나 올 듯한 공포에 떨고 있는 환자가 아니냐? 충분한 진정제로 마음 편히 가라앉혀야 한다. 진단이고 분석이고 검사도 그 다음이다. 진정제 투여만은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한데, 많은 의사들이 진통제나 진정제를 쓰는데 인색하다. 습관성을 우려한 전문적 배려이긴 하겠지만 일단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먼저다. 습관성이 될 지 안될 지는 그 다음 문제다. 조금만 조심스레 관찰하면 그 정도 감별은 전문의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다.

충분한 마취, 충분한 진통, 그리고 편안한 진정이 되게 해야 한다. 그게 의사본연의 의무요, 자세다. 이점에서만은 확실해야 한다. 인색해야 할 게 따로 있지 진통만은 과감해야 한다. 환자를 페이션트(patient)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시형 약력



1959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69 미국 이스턴 주립병원 스텝
1994 서울 고려병원장 역임
현재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부장
서울의대 외래교수
성균관대학 의대교수
저서 〈배짱으로 삽시다〉, 〈여성 20대〉 외 다수